

근대건축의 역사 서술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n the Historiography of Modern Architecture

강 혁*

Khang, Hyuk

(경성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Abstract

This study is on historiography of Modern Architecture since its beginning to present. As a critical review of the history of the writing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this study tends to be a meta-history and criticism of historical text. This study try to analyse historiographical project of Modern architecture at specific phase since the beginning of modern architecture. The historiography of Modern architecture shows that writing a history is making a discourse of Modern architecture as a imaginative representation to define and justify Modernism in architecture. The analysis of canonic text since early 20th century proves that the history of writing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played a critical role not only to shape of our ideal but the practice of architecture with a ideology construction in retrospect. With a name of truth or morality they made myths about the modernity in architecture. So we can find deep 'Hagelean Unconscious' in writing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not even the first generation of historians but the second generation who were influenced by earlier writer in spite of their intention of revision and overcoming, which is in itself the key concept of Hegel's philosophy of History. Under this kind of 'operative' discourse our view point of Modern architecture were confined and the historiography of Modern architecture itself was narrowly defined as a kind of melodrama that a few architect and work of art matters. The rise of critical history fundamentally has changed the way of seeing and writing the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but it has also a new kind of dilemma as regard to writing history and involving practice. This review of historiography traces the texts of historians as like Pevsner, Giedion, Banham, Rowe, Tafuri, Frampton, and Curtis relating to different discours making. When we consider Benjamin's famous concept of constellation, writing history necessarily is a kind of montage making in time and we always need to recognize the historicity of historiography.

주제어 : 근대건축의 역사서술, 담론과 텍스트 생산으로서 역사, 헤겔적 무의식, 비판적 역사, 메타 역사

Keywords : historiography and critical history, meta-history,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Hegelean Unconscious

“역사주의는 역사 속의 여러 상이한 계기 사이에 인과적 연관을 설정하는 데 만족한다. 그러나 어떠한 사실도 그것이 원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역사적 사건이 되는 법은 없다. 원인으로서는 사실은...그 사실과 동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사건들을 통해 사후적으로(강조 필자) 역사적인 것이 되었다.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하는 역사가는 사건들이 목주를 이루는 구슬처럼 한 줄로 꿰어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중단

한다.”

- 발터 벤야민, [역사철학 테제] -

1. 들어가는 말

벤야민의 윗글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대신, 그는 이전 시대로부터 물려받은 한정된 역사의 별자리(星座)를 가지고 자신의 시대가 형성한 역사의 별자리를 파악한다. 따라서 그는 현재에 대한 어떤 사고를 확립하는데, 그것은..... ‘지금이라는 시간’이다.”¹⁾ 여기서 우리는 그가 제시한 별자

* Corresponding Author : hkang@ks.ac.kr . 본 연구는 2014년 경성대학교의 연구 지원으로 수행된 것임

리라는 은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역사의 서술은 사실이라는 구술로 수미일관하게 펜 목걸이 같은 것이 아니라 흩어진 사건들의 단편을 가지고 (역사가가 능동적으로) 별자리로 (구성해) 파악하는 일이 된다. 우리는 별자리가 별들의 물리적 위치나 천문학적 거리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개개 별들의 배치와 짜임을 읽어내는 이의 시각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벤야민에 기대자면 역사 서술은 몽타주 작업 같은 것이 된다.²⁾

중요한 것은 별자리로서 역사적 조망은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면서 사후적으로 소급해 볼 때야 가능한 사건이라는 사실이다. 사후적이라는 조건이 별자리를 읽는 작업을 가능케 한다. 그러므로 역사를 쓰는 일은 철두철미하게 '현재 여기서'라는 상황적 조건에서 이루어지며, 의식하든 안 하든 '지금'이라는 현재적 시간 의식과 결부되어 진행되는 것이다. 이를 단순히 시간적 거리가 역사적 조망을 가능케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할 것이다. 대신 역사를 기술하는 이의 실존적 조건이자 역사 서술의 역사성(historicity)에 대한 강조로 받아들이는 게 옳을 것이다.

일찍이(1940년) 벤야민은 이 역사에 관한 짧은, 그러나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한 에세이에서 역사주의 비판을 가한다. 그의 짧은 생애 말년에 생산한 이 텍스트는 근대건축사의 정전(canon)들이 본격적으로 쓰였던 시기와 겹친다. 벤야민의 글을 인용한 이유는 동시대의 근대건축에 대한 역사 서술이 그가 비판하는 역사주의(historicism)에 의한 것임을 지적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³⁾ 오히려 역사 서술이 지금 이곳이라는 상황적 맥락과 역사가 개인이 속한 시대의 믿음과 가치를 매개로만 가능한 작업이며, 별자리로 비유되는 한 가지의 역사 해석 역시 그것이 쓰인 특정 시공간과 쓰이는 이의 위치에서만 포착 가능한 풍경임을 말하기 위함이다.⁴⁾

1) ...의 생략된 부분은 “메시아적 시간의 단편들로 점철된”이다. 이는 유대교적이고 마르크스적인 벤야민의 독특한 역사관의 표현이다. 인용된 글은 “역사철학 테제”의 마지막 ‘부기’ 부분이다. W. Benjamin,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환 역, 민음사, 1983, p. 355

2) 고지현, “발터 벤야민의 역사철학 테제: 역사주의와 역사유물론 그리고 메시아주의의 성좌구조”, [발터 벤야민, 모더니티와 도시], 홍준기 편, 라움, 2010, pp.383-421

3) 역사주의라는 용어는 여러 뜻을 함의하며 쓰이기에 쉽게 정의되기 어렵다. 대개 과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는 객관성을 이상으로 삼고 사실의 기술과 보고를 지상의 임무로 삼는 역사기술적 입장을 뜻한다. 칼 포퍼는 목적론적 사관을 역사주의라 지칭했고 건축사가 램스너는 과거 전통 양식을 차용해 디자인하는 습성을 가리켰다.

4) 그러므로 벤야민에게 역사의 서술방식은 인과적인 것이라기보다 ‘구성적 원리’에 의한 것이며 역사의 의미는 사실들의 열거에서가 아니라 ‘이론’의 틀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다. 고지현, 앞의 책, p.395

근대건축에 관한 기념비적인 저작인 [공간, 시간, 건축](1940)의 제 1장에서 기디온은 자신의 역사 기술에 관한 생각을 피력한다. “역사가는 자신의 시각에 비추어 시대를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시대를 있는 그대로 기술해야 하며(강조 필자), 역사가 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는가를 설명해야 한다.” 이는 철두철미 역사주의적 시각이다.⁵⁾ 지나간 과거, 즉 실재를 있는 그대로 기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역사주의의 한 요체인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더불어 기디온은 역사의 흐름, 즉 근대건축의 향방과 전개를 언급한다. 그가 보기에 근대건축의 출현은, 그리고 근대운동(Modern Movement)의 과정은 전시대의 모순과 갈등과 분열의 해소로서 ‘종합’에 해당한다. 새로운 전통으로서 그것은 동시대, 나아가 미래를 향도할 것이다. 관련하여 그가 역사의 흐름 가운데 지류에 해당하는 ‘잠정적인 사실’과 항구적인 ‘구성적 사실’을 구분하고 후자를 건축사의 분류이자 진정한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했음은 잘 알려져 있다.⁶⁾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써야한다면 동시대의 역사의 판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 기디온의 모순에서 우리는 동시대 건축의 진로와 방향에 대한 그의 심려를 읽는다. 오늘의 시각으로 보자면 그의 근대건축에 대한 설명 방식은 다소 생소하게, 혹은 낡은 것으로 비치며 납득하기 어렵다. 그의 역사를 ‘작위적’인 것이며 목적론적인 것으로 비판하기는 쉽다. 그러나 근대건축에 지배적인 서사로서 그의 역사가 우리에게 미친 결정적인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⁷⁾ 시간의 경과와 건축사학의 변모는 과거의 지배적 서사를 비판하고 그 한계를 지적할 수 있는 입지를 제공해준다. 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역사를 써야한다면 우리 또한 (다른 모양이겠지만) 과거에 대한 개념과 의미를 생산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기디온과 동일한 처지이며 결코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은 것이다.

역사, 즉 서술된 역사는 과거에 대한 객관적 재현(representation)도 아니고 진실한 재현도 아니다. 그러한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결코 과거라는 ‘실재’(the real)에 그냥 닿을 수 없다. 기억으로서 과거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며, 오직 사가의 역사 서술을 매개 삼아 과거는 살아있는 기억의 지위를 얻게 된다. 즉, 과거에 대한 앎은

5) S. Giedion, [Space, Time and Architecture](《공간 시간 건축》), 김경준역, 시공문화사, 1998(1941), p. 16

6) 기디온은 제 1장을 자신의 사관과 역사 철학을 피력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위의 책, pp. 4-21

7)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된 건축의 테마로서 공간 같은 몇 가지 관념은 그와 그의 스승 격인 파울 프랑클이 물려준 유산이다.

역사 서술을 통해서이며, 그것은 역사가가 과거에 대해 관여하고 발언하는 말(discourse)에 의해서이다⁸⁾.

역사가는 결코 진공 속에서 역사를 쓰지 않는다. 그는 동시대의 시공간적 한계 속에서 역사를 쓰며, 그의 역사는 자신이 속한 시대와 사회의 선입견과 편향을 담을 수밖에 없다.⁹⁾ 모든 역사에는 그것을 쓴 저자의 입장과 관점이 숨어 있다. 역사가의 시각이나 입장에 따라 전적으로 상이한 역사가 쓰인다는 사실은 역사서술론(historiography)에서는 상식이 되었다.¹⁰⁾ 이는 역사가 누구에 의해 쓰였는가라는 서술 주체의 문제를 제기한다. 역사가는 저마다 역사의 서사를 구축하는 주체이며 자신만의 이야기 혹은 서사(narrative)를 구축해간다. 역사 서술은 “역사가가 빠져나올 수 없는 장소성과 회피할 수 없는 개인적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가르쳐주기¹¹⁾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역사라는 것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지만 역사적 서사는 순수한 사실이거나 증언이 아니다. 시대의 고유한 인식 틀 혹은 지(知:episteme)와 화자의 이해(利害), 입장에 의거한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다.¹²⁾ “모든 역사적 지식은 지정학적이고 또 정치적”이라는 지적은 의미심장하다.¹³⁾ 그러므로 모든 역사 서술은 역사적 구성물(historical construct)이다. 그것은 모종의 시대적 상황 하에서 만들어졌으며 그런 식의 담론이 된 데는 이유와 배경이 있다. 정전처럼 간주되는 지배적인 텍스트들도 원래부터 존재한 것은 아니다. 그것들의 (학문적/담론적) 권위는 아카데미 속에서 상징 권력을 확보하고서 과학적 ‘진리’를 주장하면서이다. 그렇다면 시간 속에서 담론의 생성과 변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¹⁴⁾

역사 서술 혹은 거기에 대한 논의로 번역되는 어휘인 historiography는 어떻게 역사를 쓸 것인가에 관련된 비판

적 검토이다.¹⁵⁾ 역사 서술은 시간의 경과 속에서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역사가 된다. 역사 서술의 공부는 누가 왜 그런 역사를 썼는가 하는 서술 의도를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그것이 그 시대에 담론이자 권력으로 수행했던 기능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즉, 역사 서술에 대한 연구는 과거라는 (포착할 수 없는) 실재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서사를 구성하는 담론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탐색함으로써 과거를 보는 조망의 변화를 확인하는 동시에 그 조망 점의 입지 자체의 변동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기술에 대한 탐구는 담론사로서 지식사가 되고 사상사가 되며 이념사가 되고 무엇보다 메타 역사(meta history)가 된다.

그러므로 역사 서술을 역사적으로 검토하는 일은 필히 역사에 대한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담론 생산이자 텍스트 생산으로서 모든 역사 서술은 그것을 구성하는 전제와 가치와 믿음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저마다의 역사 서술에는 고유한 접근 방식이 있고 역사 철학적 입장과 이데올로기적 입장이 있다. 그런 것이 없이 역사를 쓰는 일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 사료는 스스로 말하지 않으며 사실이 객관성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다. 역사 기술의 소기의 목적이라 말해지는 “사실과 자료에 근거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해석을 제시하는 일”은 이러한 매개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진다. 다른 말로 하자면 역사 서술의 비판적 검토는 역사를 쓰는 일 자체의 역사성을 자각하게 한다.

이상 관점에 입각해서 본 연구는 근대건축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역사서술론을 시도하고자 한다. 근대건축과 그 역사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발휘한 저자들과 그들의 대표적 저술을 대상으로 삼고 한정하여 그 서술의 입장과 방법에 대해 탐색하려는 것이다. 본 논문은 문헌연구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며 분석과 기술을 병행하여 글쓰기가 본 논문은 진행된다.

2. 근대건축사 서술에 대하여

근대건축사에 대한 역사 서술에 대해 살펴보는 작업이 흥미로운 것은 위의 사실을 잘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선 그것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일어난 근대건축에 대한 관점의 이동과 서술상의 변화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에 유용하다. 사실 근대건축이라는 용어 혹은 그 개념은 모호한 것이다.¹⁶⁾ 우리는 종종 ‘근대건축사’라는 것이 담론적

8) 강혁, “우리 서양건축사 교육의 반성”, [건축역사연구], N 79, 제20권 6호, 2011, p. 61

9) 이런 견해는 해석학에서의 일반적 상식이며 해석학의 대가인 가다머의 일관된 주장이다. 시공간적 제약과 선입견이 역사가의 출발점이자 자산이라는 것이다.

G. Winke, 이한우 역,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 사상사, 1993, p. 130

10) historiography란 말은 역사서술이자 그것에 대한 탐구를 의미한다. 역사서술론이란 번역도 이런 측면에서 가능할 것이다.

11) 마이크 앤 홀리, “미술사에 출몰하는 유령들”, [미술사의 현대적 시각들], 마크 A 치담 외 엮음,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7(1998), p. 81

12) 이런 주장의 근거를 미셸 푸코는 ‘에피스테메’라는 용어로,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로 제기했음은 잘 알려져 있다.

13) 이성형, 『클럽부스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 까치글방, 2003, 19쪽

14) 푸코에 따르면 담론은 철저한 권력과 관련하여 생산되며 이데올로기적 차원을 떨 수밖에 없다

M. Foucault, 이정우 역, 『지식의고고학』(L'archeologie du savoir), 민음사, 1992(1969)

15) 역사 서술론은 역사적 서사에 대한 비평/비판을 수립할 기회를 제공한다.

Mark Zazombek, “A Prolegomena to Critical History”, [JAE 52/4], 1999, p. 198

효과로 존재하는 상상적 재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객관적인 실체로서 근대건축이란 없다. 있다면 근대건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과 해석들이 있을 뿐이다.

앞서 언급했듯 그동안 쓰인 저마다의 근대건축사 서술에는 특유의 전제나 가정, 가치와 이념이 스며들어 있다. 그 사실을 망각한 채 객관적인 역사로 읽는다면 그것은 ‘자연사’로 변신하게 되고, 원래 그렇게 있었던 것으로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한때 정전(canon)으로 간주되던 근대건축의 지배적인 서사들을 읽으며 우리가 그것을 선험적 존재로 수용했던 이유이다.

그러므로 역사 서술에 대한 연구는 건축사가에 대한 비판적 연구이기도 하다. 그들이 쓴 역사가 근대건축에 관하여 설명해 주는 것 못지않게, 아니 훨씬 더 역사가 개인에 대해서 말해준다. 즉 그의 접근 방식, 입장, 의도, 관심을 밝혀주는 것이다. 이는 역사가로서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¹⁷⁾ 그가 동원하는 방법과 논리를 통해서 그가 어떤 유형의 역사가인지 확인시켜주고 서술의 바탕에 깔린 사고와 관점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¹⁸⁾

우리는 근대건축의 역사 기획(historical project)과 평행하게 역사서술적 기획(historiographical project)로서 근대건축사 서술에 내재한(집필) 의도 내지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¹⁹⁾ 그리고 그것의 시간적 변화를 추적해 근대건축 사학사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근대건축의 역사에 대한 역사로서 역사가가 근대건축에 대해 어떤 개념과 의미를 부여했는가를, 그들의 역사 서술의 내용과 해석의 변화를 추적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²⁰⁾

근대건축사의 선구적 서술이 등장한 1930년 전후에서부터 보자면 80여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역사 서술상의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계속 제시되었던 주요 주제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건

축의 근대성을 여하히 규정하느냐 하는 것, 둘째 근대건축의 출현에 대한 이유와 배경으로서 시대적 맥락, 셋째, 그 기원과 주요 사건, 운동과 계보의 성립과 전개 과정, 넷째, 근대건축을 지탱하는 사고와 가치관의 조명, 다섯째, 다섯째, 그 후속적 진화와 동시대의 실천에 대한 견해와 판단, 여섯째, 동시대의 문화적 실천으로서 근대건축의 의미 등이다. 여기에 누가 주체이고 주역인가와 무엇이 가장 의미심장한 성과(작품)인가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이에 대한 답변은 계속 달라졌지만 근대건축사가 이런 질문과 결부되어 쓰였음은 분명하다. 거기에 대한 달라진 답변, 새로운 이슈와 문제의 제기, 상이한 해석들이 근대 건축사학사를 구성한다고 보인다. 그럴 때 근대건축사의 서술에서의 변화는 시간적 계기에 따라 거칠게 범주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근대건축사의 정전화(canonization)의 역사가 있다. 그것은 근대건축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그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는 선구적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담론이 역사적 ‘진실’로 받아들여지면서 근대건축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거기에 개입하고 기여한 역사가를 우리는 제1 세대 건축사가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²¹⁾ 그들은 근대건축운동의 목격자이자 동반자들이었다. 모더니즘 건축에 대한 인식의 제공과 정당화/옹호가 집필의 주요한 동기가 됐다.²²⁾

둘째로 거기에 대한 수정과 확장의 역사, 그리고 회의와 의심의 담론 생산의 역사가 있었다. 이는 기존 텍스트의 비판, 새로운 사료와 증거들의 발굴, 반증적 관점들의 도입, 간과되었던 사적 부분의 조명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선배사가들의 담론적 권위에 도전한 역사가들을 제2 세대 건축사가라고 부른다면, 그들에 의해 근대건축은 좀 더 폭넓고 다변적인 이해의 길이 마련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²³⁾ 그들의 접근과 방법은 이전 서사에 대한 근본적 비판이라기보다 계승 보완하는 성격이 더 짙었으며 전후의 바뀐 현실 및 실천과 결부되어 이루어졌다. 근대건축의 개념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그들의 역사 서술로 이루어졌다.

셋째로 비판적 역사의 등장과 그 이후의 관심의 이동을

16) Alan Colquhoun, [Modern Architec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 9

17) 가장 좋은 예가 타푸리와 콜린 로우일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두 사가는 전자가 좌파적 시각에서 자본주의 체제 내의 건축을 비판했다면, 후자는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건축 내의 자율적인 전통을 옹호했다.

18) 이런 관점에서 건축사 기술을 논한 것으로는 “On the Methodology of Architectural History”, [Architectural Design], N. 51, 6/7, London, AD Profile, 1981

19) 역사 기획(historical project)이란 말은 타푸리로부터 빌려 온 것이다. 여기에 착안해 역사가의 서술 작업을 역사서술적 기획으로 지칭했다.

M. Tafuri, “the Historical Project”, [The Sphere and the Labyrinth], trans. by P. d’Acierno, Cambridge, The MIT Press, 1987, pp. 1-21

20) P. Tournikiotis, [The Historiography of Modern Architecture], Cambridge, The MIT Press, 1999

21) 구체적으로 램스너, 기디온, 리차즈, 베네, 베렌트 같은 건축사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22) 뱌헨에 의하면 그들은 근대 운동에 대한 관념을 만들었다. 비들러에 의하면 그들은 근대성의 기원과 발전에 관한 정연한 서사를 제공하면서 모더니즘을 ‘역사화’했다. 즉 역사적 사건 혹은 개념으로 형상화했다.

A. Vidler, [The History of the Immediate Present], Cambridge, The MIT Press, 2008, pp. 5-7

23) 구체적으로 카우프만, 로우, 뱌헨, 베네볼로, 콜린스, 스킨리, 조디, 제비 같은 건축사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들 수 있다. 기존 서사의 해석적 토대와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들을 전복하고 해체하는 역사 서술이 시도되었다. 급진적이든 보다 온건하든 그것들은 근대건축에 대한 성찰과 재해석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었다. 이들을 제3 세대의 건축사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근대건축 사학사, 즉 역사서술의 역사는 근대건축에 대한 입장의 변모의 역사로서, 계속적인 개정과 재해석의 역사로, 텍스트 재생산의 역사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근대건축에 대한 역사 서술의 역사를 바라보고자 한다. 앞서 벤야민식의 역사 개념을 따르면서, 헤겔적인 무의식에 지배되었던 주류적인 역사 서술과 거기서 탈피해 상이한 서사와 시각을 제시하려는 시도로 나누어 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전자의 역사 서술을 근대건축의 동일성을 가정하고 그 정체를 제시하려는 관념적 노력으로, 후자의 역사 서술을 그것에서 탈피하여 상이한 역사 서술을 시도하려는 노력으로 구분하게 한다. 이때 후자는 근대건축사 서술을 쓰는 이의 시점(時點)에서의 사후적인 재조립이자 지적 구조물로 간주하면서, 이전의 역사적 조망 자체가 왜곡되거나 문제적인 것임을 비판하고 다른 프레임으로 보기를 제안하거나, 아니면 보는 프레임 자체를 바꾸려는 서술적 입장이 된다. 이를 ‘비판적 역사서술’(critical historiography)이라 부른다면, 그것은 다른 역사, 혹은 대안적 역사에 대한 시도이기도 하다.

3. 근대건축사 서술에서의 ‘헤겔적 무의식’

역사주의와 더불어 근대건축사 서술에 스며있는 헤겔주의적 사관은 잘 알려져 있고 거기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그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대표적 역사로는 펠스너나 기디온의 것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후대 작가들의 역사 서술에도 그것은 암묵적으로 스며들어 있다. 어쩌면 오늘날까지 모든 역사가는 헤겔의 그림자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그에 반하던 그에게서 멀어지든 헤겔과 모종의 관계를 상정하지 않은 역사 서술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헤겔적 무의식이란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고 근대건축사 서술에도 그 영향은 짙게 깔려 있다고 보인다.²⁴⁾

최초의 근대건축사가라 할 펠스너의 역사 기술의 의도는 근대건축이 시대적 요구의 산물이며 우리 시대의 보편적 양식(universal style)임을 주장하는 일이다. 건축이 시대정신

의 발로임을 강조하는 그에게 근대건축의 출현은 유물적 동인이나 사회적 동인에 앞서 정신(Geist)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펠스너의 근대건축사 혹은 근대운동(Modern Movement)의 역사는 19세기의 혼돈 상황을 뚫고 우리 시대의 진정한 양식이 출현하는 과정, 그리고 그로피우스 같은 건축가와 그의 작품에서 그것이 합당한 표현 양식을 얻게 되는 이야기로서 멜로드라마이다²⁵⁾.

모리스에서 그로피우스로 이어지는 선구자이자 영웅들로 이어지는 계보는 진보와 발전으로 이어지는 시종일관한 단선적인 역사로 구성되며, 그 정통한 역사 바깥에는 근대건축의 ‘적들’, 곧 이단과 퇴폐의 무리들이 존재한다. 근대건축의 출현은 ‘되어야 할 사건’으로서 역사적 필연이기에 정당하고 올바른 것이며 따라서 거기에 우리는 동참할 의무가 있다²⁶⁾.

펠스너와 달리 기디온은 근대건축을 양식으로 보길 거부하고 내적 삶의 방식, 혹은 접근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양식사, 곧 형식의 계기로 건축사를 보는 입장은 건축의 본질과 내적인 정신성을 외면하고 삶과 무관한 피상적이고 지엽적인 외양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그가 건축의 근대성의 핵심 개념으로 내세우는 것은 시공간이다.

기디온에게 근대건축의 출현의 역사는 전 시대의 갈등과 모순의 해결이자 종합의 과정이다. 대립되는 가치들과 문제들이 해소되는, 화해와 일치가 근대 건축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²⁷⁾. 여기서 기디온은 예술사를 넘어선 문명사와 결부시킨 전체론적 관점에서 근대건축의 출현을 말하고 있다. 그는 보편적 전망(universal look)을 강조하며 역사 속의 항존하는 구조라 할 ‘구성적 사실’을 구하고자 한다. 이는 묘하게 근대 기술문명과 고대 문명의 상동성의 발견으로 이끈다. 근대성을 영원한 가치와 연결시키는 것이다.²⁸⁾

독일 미술사라는 학문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펠스너와 기디온은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서사를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역사 서술의 동기가 근대 건축이라 불리는 역사적 실체의 출현을 인식시키고 그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려는 데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근대건축과 그 역사에 대해 유사한 접근과 역사 철학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25) N. Pevsner, [pioneers of Modern Design], Middlesex, Penguin Books, 1982(1936)

26) 이런 그의 역사서술적 입장은 보수주의 사가인 왓킨에게 역사에 도덕과 이념을 개입시킨다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D. Watkin, [Morality and Architec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Part 3

27) 배형민, "현대건축사론의 철학적 재조명", [건축역사연구], 제5권2호, 1996, p. 73

28) S. Giedion, [Architecture and the Phenomena of Transi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24) ‘헤겔적 무의식’이란 말은 미술사가인 키스 먹시에게서 차용했다.
K. Moxey, [The Practice of Persuasion]([설득의 실천]), 조주연역, 2008(2001), 조주연역

무엇보다 근대 건축이 19세기 건축 문화의 혼돈과 갈등의 종결이자 새로운 출발이라는 동일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 '보편적 양식의 출현'이든 '새로운 전통의 성장'이든 근대건축은 전 시대의 모순의 해소이며 문제들의 해결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이 새로운 건축을 정당화할 근거가 되고 동참해야 할 윤리적 이유가 된다.

다음으로 역사의 진로를 대립 구도 속에서 파악하면서 진정한 것과 사이비, 옳은 것과 그른 것, 영속할 것과 단명할 것 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일이 해석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역사의 진보와 발전은 정신(이성)이 합당한 길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한편으론 우리가 인식하고 편승해야 할 것이기도 하다, 그들에게 역사의 진로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동시대 건축에 대한 심려라는 이율배반적 태도가 공히 목격된다. 그들은 동시대의 실천에 발언하고 역사의 진행을 향도하고자 하는 욕망을 공공연히 비친다.

또한 시대정신의 구현이자 표상으로서 위대한 건축가와 그 집약적 발현물로서 작품이라는 생각에서도 유사하다. 그로피우스 같은 건축가는 역사의 주체이자 동시에 도구(agent)가 되며 그의 작품은 그들이 내세우는 근대의 핵심 개념을 담고 있기에 시대의 대표작이 된다.

이러한 역사 서술은 시대와 사회와 정신이 하나로 통합되는 사건으로 근대건축이라는 사변적 담론을 낳았다. 이것이 근대건축을 동일성으로 포착하려는 해석이며 하나의 신화 생산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목적론적 서사이자 구원의 서사로서 그것은 근대건축의 대두와 성립이 필연적인 사건임을, 즉 일어나야만 했던 역사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서술의 프로젝트가 '수사학적' 것임에도 마치 '인식적'인 것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신념, 가치관에 의한 서술을 객관적인 역사적 '진리'로 제시하고자 했다. 대서양 양안에서 쓰인 그들의 역사는 이후 정전으로 자리 잡고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후속된 건축사 역시 그것들과 모종의 영향사적 관계 속에서 쓰여지게 되었다.

건축사 서술에 스며든 헤겔주의적 역사철학은 이 두 역사가에게 너무나 뚜렷하며 노골적이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를 극복하려는 후대 사가들의 서술에도 무의식처럼 스며들어 있다고 보인다. (극복이나 지양 자체가 헤겔적 관념이기도 하다.) 정신사적인 것, 미학적인 것, 형식적인 것으로 건축의 역사를 읽어내고 서술하는 작업이 19세기 미술사에서 연유하고 있으며 거기서 건축사의 학적 전통이 파생되어 나온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미술사에 대한 헤겔주의적 영향도 잘 알려져 있다.²⁹⁾ 역사 진행에 내재적인 논리가 존

재한다는 믿음, 이성적 발전 안에서 대립하는 가치의 갈등과 모순의 지양³⁰⁾이라는 관념, 동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이 예술/건축이라는 구체적 사실로 현현된다는 주장은 헤겔주의 역사의관의 핵심이다.

결국 헤겔의 역사철학은 역사의 흐름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이며 진보사관, 역사주의, 관념사를 낳았다. 헤겔주의적 역사의관의 핵심은 역사의 진행에는 실재가 있고 현실 역사는 그 표상 혹은 재현(representation)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 서술은 그 재현의 재현이 된다. 이러한 역사가 자기 완결적이고 닫힌 역사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결국 역사 서술에서 헤겔적 무의식은 "역사를 단일한 과정으로 전체화"하려는 욕망이 될 것이고, 그것은 역사 혹은 근대건축사를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동일성의 신화로 환원될 것이다. 거기 동원되는 변증법은 이원적 혹은 대립 구도의 해소로 결말이 나는데, 편리한 도식이지만 현실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사상시킨다. 사실 이후에도 근대건축을 설명하는 데 이런 서술 방식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동원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역사 서술의 편협성과 불가능성을 인식할 때 우리는 다른 역사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레이너 뱌험과 콜린 로우 같은 다음 세대의 대표적인 건축사가들에게서 우리는 역사 서술상의 커다란 태도 변화를 발견한다. 한편으로 여전히 선배 건축사자들의 영향과 헤겔적 무의식의 존재를 감지하기도 한다. 우선 그들이 역사를 쓴 시점은 앞서의 선배 사가들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서였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시간의 경과와는 그들이 동시대 건축의 실천과 전개를 목격하면서 근대건축에 대한 다른 견해를 피력할 기회를 제공했다.³¹⁾

레이너 뱌험의 역사는 근대건축의 지평을 확장하고 그 이해에 개정을 고하는 중요한 기여를 했다. 우선 그는 19세기 아카데미의 고전적 전통이 근대건축에 미친 영향을 조망함으로써 그의 선배들이 주장했듯이 근대건축이 전시대와의 근본적인 단절이라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는 기디온 등에 의해 제기된 진보적 건축과 근대건축의 요체로서 기능

29) 고프리치에 의하면 헤겔은 미술사학의 원조이며 이후 근대 미술사는 그의 역사철학과 미학의 재해석에 불과하다. 그는 이런 전통에 극히 비판적이다.

E. H. Gombrich, "In Search of Cultural History", [Ideals and Idol], Oxford, Phaidon Press, 1979, pp. 24-60

E. H. Gombrich, "Hegel and Art History", [Methodology of Architectural History], pp. 3-10

30) Susan Buck-Moss, [헤겔, 아이티, 보편사], 김성호역, 문학동네, 2012(2009), p. 160

31) 콜린 로우의 첫 번째 에세이인 "이상적 빌라의 수학"은 1947년 쓰였으며, 뱌험의 [제1 기계시대의 이론과 디자인]은 1960년에 출간되었다.

주의가 가진 빈곤을 강조하며 역사 서술의 정당성이나 담론의 논리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근대건축을 논하는 데 뱀헨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기술의 역할과 지위이다. 근대 건축의 중심 문제에는 과학과 기술이 도사리고 있다. 그에게 기술은 근대화의 추진력이고 역사적 발전의 동인이며, 동시대의 건축이 회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³²⁾ 그런데 선배 사가들이 주장한 바처럼 건축에서의 기술의 수용, 기술과 예술 양자의 통합은 실제로 구현되지 않거나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³³⁾ 모더니스트들의 기계 미학이 보여주듯 그것은 상징적, 미학적 차원에 머물렀다. 그러므로 선배 사가들의 담론은 신화에 불과하다.

그가 제기하는 참신한 해석은 건축이라는 분과(discipline)와 기술이라는 분과가 양립할 수 없는 상이한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는 근대건축을 딜레마에 처하게 한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기술 변화의 속도에 건축이 발맞추다가는 문화로서 건축은 그 정체성을 상실할지 모른다. 그런지 않기를 고집할 때 건축은 시대의 흐름에 뒤쳐진 영역으로 남을 것이다.³⁴⁾ 이는 현재까지 전혀 해소되지 않는 문제적인 주제이다. 뱀헨은 근대성의 핵심이 간단없는 변화와 새로움이라는 것, 그것을 기술이 추동한다는 것, 그 추세에 건축이 편승할 때 건축 자체가 변할 수밖에 없음을 옳게 지적한다. 근대에 들어서 일어난 기술과 예술의 분열은 봉합되지 않았다. 뱀헨은 여기에 선배 사가들이 기피했던 미학을 다시 불러온다. 그들이 믿었던 것과 달리 미학은 건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뱀헨의 역사 서술 역시 헤겔적 무의식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다. 기계 시대의 도래는 시대정신이다. 제 1기계시대에 건축가는 거기에 진정 합당한 건축을 생산해내지 못했다.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그는 주류 역사와 시대착오적인 것의 구분을 시도한다.³⁵⁾ 그가 벽민스터 풀러를 찬미하고 아키그램과 같은 팝 건축에 경도된 것도 이런 입장에서이다³⁶⁾. 그는 기술적 진보와 건축의 진보를 동일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시대의 건축 실천에 개입하고자 한다.³⁷⁾ (그의 서술에는

여전히 대립 구도가 구사되고 있기도 하다.)

아마도 콜린 로우만큼 근대건축의 역사 서술에서 헤겔주의적 서사에 강한 반감을 피력한 역사가도 드물 것이다. 그는 근대운동,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역사 해석이 지녔던 이데올로기와 이상향주의(utopia)의 허구성을 폭로하면서 빛바랜 신화로서 진보와 발전의 서사를 비판하였다. 이 점에서 로우는 근대건축의 보편적 담론에 회의하고 근대건축을 설명하는 ‘다른’ 담론을 제시한 선구적 역사가로 규정된다.

일찍부터 그는 기능이나 기술, 혹은 시대정신 대신 형식(form)을 근대건축을 분석하는 원리로 동원하고 있다³⁸⁾. 그가 형식을 내세우는 한 이유는 근대건축 혹은 동시대 건축이 관념이나 가치에 휘둘리지 않게 하려함이다. 그는 근대건축을 지탱시켜왔던 가정들이 별로 유효하지도 타당하지도 않음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그것은 진보나 해방, 과학, 진화, 시간 구조에 관한 환상 같은 관념들의 집합이다.³⁹⁾ 여기엔 근대 건축의 기술 결정론적이고 역사주의적인 관점에 대한 로우의 혐오, 그리고 건축에서의 도덕, 이념의 과잉을 배격하려는 그의 입장이 배어있다. 이는 결국 기다온 등 선대 사가들의 해석에 대한 비판이 된다.⁴⁰⁾

그는 근대건축을 전통과의 단절이나 새로운 창안으로 보는 대신 오히려 유럽 르네상스의 인본적 전통의 연장선상에 위치시킨다. 그는 근대건축의 대가들의 작품 속에서 고전(르네상스), 매너리스트, 신고전주의적 형식 구조를 읽어낸다. 이러한 독해의 유효성은 차치하고 그것은 근대건축에 대한 기존의 선입견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의 전통’에 내재하는 오래된 것들을 귀환시킨다⁴¹⁾.

근대건축에 대한 역사가로서 로우의 위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주의자로서의 그의 이론과 비평적 입장이다. 이는 기존의 역사 기술이 반복해온 근대건축이 무엇이나는 인식론적 질문 대신 ‘어떻게’ 라는 방법론적 질문을 내세우는 것이다.⁴²⁾ 양식 혹은 형태의 문제를 배제한다는 모더니즘 건축의 기존 교의에 반발해 형식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건축의

32) 그의 근대건축사에서 아방가르드인 미래파가 주목을 받고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이유이다.

R. Banham, [Theory and Design in the First Machine Age], The MIT Press, 1980(1960), section 3

33) 이상현, “근대건축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소고”, [건축역사연구], 제8권 1호, 1999, p. 54

34) R. Banham, 앞의 책, pp. 320-330

35) P. Tournikiotis, 앞의 책, p. 161

36) 그의 60년대 팝문화에 대한 경도는 다음의 에세이 모음집에도 잘 나타나 있다.

R. Banham, [Design by Choice], ed. by P. Sparke, London, Academy Editions, 1981

37) 실제 건축에서 그는 부루탈리즘, 메타볼리즘, 아키그램, 팝 건축 등에 호감을 표시한다.

38) 로우는 미술사의 메카인 바르부르크 연구소에서 1940년대 비트코버 밑에서 건축사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고프브리치나 파노프스키, 빌플린의 관점을 배우게 되었다. 그 산물이 그의 첫 저서이다.

C. Rowe, [The Mathematics of the Ideal Villa and Other Essays], Cambridge, the MIT Press, 1982(1976)

39) 로우는 [선한 의도의 건축]에서 이에 대해 상술한다.

C. Rowe, [The Architecture of Good Intentions], London, Academy Editions, 1999

40) 그는 근대건축의 전체 역사를 시도한 적이 없으며 이론적 성격이 강한 단편적인 에세이들을 발표해왔다.

41) 그의 제임스 스테어링의 건축 디자인에 대한 영향,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에 대한 일정한 기여는 잘 알려져 있다. 비틀러는 로우를 매너리스트 모더니즘이라 칭하고 있다.

A. Vidler, [Histories of the Immediate Present], Cambridge, The MIT Press, 1995

42) 이는 그의 정신적 스승인 칼 포퍼의 철학적 태도와 상응한다.

자율성(autonomy)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는 사회적 맥락이나 의미 내용을 소거한 채 순수한 형태의 실험을 통해 건축을 고상한 심미적 실천으로 정위시키는 일이다.⁴³⁾ 그의 “이데올로기 없는 형식주의” 혹은 “내용 없는 수사학”은 제도권 내 진부한 관행으로 전락한 근대건축을 구하려는 시도였다.⁴⁴⁾

그는 르 코르뷔제를 동시대의 팔라디오이자 미켈란젤로로 간주하며 우리 시대의 위대한 건축가로 자리매김한다. 코르뷔제가 위대한 것은 이전의 사가들이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에서였다. 로우는 그의 작품 속에서 상이한 두 경향의 대립과 갈등을 읽으며 그를 훨씬 복잡하고 모호한 대상으로 독해하였다.

근대건축을 시대정신이나 사회의 산물로 보기를 거부하는 로우가 길으로 보기에 반헤겔주의자의 면모를 띠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역시 근대건축의 전개를 르네상스 이후의 유럽 건축사와 상동적(parallel)인 것으로 읽어내며 여전히 단계적 계기를 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대건축의 진화에서 매너리즘이나 신고전주의적 성격을 포착하려는 것이나 빌플린적 형식 비평이 그러하다.⁴⁵⁾ 한편 형식 비평에 동원하는 비례와 기하학에서 어떤 무시간적이고 미학적 가치를 인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그의 형식주의적 처방, 특히 플라주 시티는 근대주의의 쇠락과 출구 없음에 대한 치유책이다.⁴⁶⁾ 유토피아에 반대하는 그이지만 여기서는 어떤 대안적 유토피아의 냄새를 피우며 역사가-이론가로서 현실과 실천에 개입하고 있다. 따라서 근대성의 새로움에 반하는 그의 종말론적 서사에서 또 다른 헤겔적 무의식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물론 그의 형식주의자적 역사 비평이 가지는 이점만큼이나 그 한계는 명백하다. 건축 장르만큼 형식주의 비평이 난관을 부딪치는 영역도 없을 것이다. 의미와 가치, 혹은 물질 토대를 배제한 건축의 형식은 추상으로서 아카데미의 정신적 영역에서는 유효해보이나 현실에선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빌플린식의 시각 중심적이고 내재적인, 형식의 반복/대립의 비평은 급격히 변화하는 현실 건축을 읽어내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또한 그의 자유주의자적 입장은 부르주아 미학으로 간주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⁴⁷⁾

콜린 로우가 흥미로운 것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가인 벤헨과 타푸리와 비교되기 때문이다. 근대건축과 그 역사에 대해 그들은 서로 공유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대척적인 입장에 있기도 하다. 근대건축과 전통을 연관시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벤헨의 테크놀로지와 연관된 미래주의자적 태도와 비교해보자면 로우는 진보나 새로운 것을 무시하는 경험주의자적 태도를 보인다. 한편, 근대 건축이 지닌 허구적 신화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로우와 타푸리는 겹친다. 그러나 로우가 형식을 동원해 근대 건축에 내재적 비판을 가했다면 타푸리는 자본주의 체제와의 관계에서 근대 건축의 존립 조건에 대한 이데올로기 비판을 가했다는 점에서 서로 반대의 입장에 있다. 아마 타푸리가 보기에 로우 식의 비평 역시 작위적이고 공허한 것으로 비칠 것이다.

4. 담론사적 이동 : 비판적 건축사 서술

지난 30-40년간의 지식사의 변화는 역사 서술 방식에 심대한 지각 변동을 가져왔고 그것은 건축사 서술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역사 서술이 담론적 실천이며 텍스트 생산이라는 것은 상식이 되면서 실증주의의 사학이나 역사주의에 기반한 주류 건축사는 호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건축 이론, 역사, 비평 분야에서 유럽중심주의, 인종중심주의, 남성중심주의적 언술에 대한 비판과 반성도 제기되었다.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좌파이론, 구조주의, 후기구조주의, 해석학의 담론은 분과 학문으로서 건축사학에 적지 않게 침투했다. 이런 영향은 ‘비판적 역사서술’(critical historiography)과 수정주의 역사학의 대두를 가져왔다. 그것은 역사 서술의 입장 자체를 물으면서, 그 이론적 근거와 전제, 이념적 배경을 들여다보려 한다. 최근 탈근대 역사학의 동향은 역사서술 방식에 일대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근대 건축의 역사를 다시 쓰도록 하는가 하면 근대건축을 보는 관점의 이동을 낳고 있기도 하다.⁴⁸⁾

건축사, 그리고 근대건축사에서 진정한 비판적 건축사의 등장은 거의 전적으로 타푸리의 역사서술에 힘입고 있다. 벤야민, 알튀세 같은 좌파사상가들과 푸코 등 후기구조주의자를 참조하면서 그는 근대건축과 그 역사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해석을 시도한다.⁴⁹⁾ 그것은 기왕의 근대건축의 역

43) J. Ockman, "Form without Utopia: Contextualizing Colin Rowe", [JSAH], 57:4, Dec., 1998, pp. 450-452

44) 이런 입장은 [5 건축가]의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C. Rowe, "Introduction", [Five Architects],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pp. 3-8

45) 이러한 그의 독법은 비트코버와 에밀 카우프만에게서 영향을 입은 것이다.

46) C. Roew, [Collage City], Cambridge, The MIT Press, 1978

47) 강혁, "콜린 로우의 건축론", [건축역사연구], 56., 제 17권 1호,

2008, pp. 23-26

48) 구체적으로 헤이즈, 비들러, 콜로미나, 위글리, 자점백 같은 소장 사학자들의 연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49) 푸푸리의 역사 서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Being Manfredo Tafuri", [ANY], N. 25/26, N. Y. 2000

"The Historical Project of Manfred Tafuri", [Casabella 619-620], 1995, 특집호

사 서술과 그 역사에 대한 전면적 비판의 성격을 지닌다. 이데올로기 비판에 의거한 그의 역사 해석은 우리를 아방가르드와 모더니즘 건축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이끌었다⁵⁰⁾. 타푸리로 인해 종래의 단선적이고 인과적인 역사, 역사의 동인으로 몇 개의 개념(공간, 기술, 형식)을 동원해 끼워 맞추는 역사, 통합되고 체계화된 규범적 역사 서술은 그 유효성을 적지 않게 상실했다.

그러나 타푸리의 역사서술적 기획(historiographical project)이 제기하는 문제는 간단치 않다⁵¹⁾. 그는 역사의 진행 방향에 선험적인 도식을 가정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동시대 건축의 생산과 미래 진로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가들의 서술 행위를 ‘작위적’(operative)이라고 비판한다.⁵²⁾ 역사 서술은 현실 건축, 즉 실천에 개입하거나 관여해선 안 된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작위적 역사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역사가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비평/비판을 가하는 것뿐이다. “계급 비평은 가능하지만 계급 건축은 가능하지 않다”는 그의 유명한 언명은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일 게다. 그런데 과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현실 개입이나 관여 없는 역사 서술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혹은 가능하거나 할까? 긍정적인 의미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과거를 설명함으로써 (의도하든 하지 않든)현실에 대해 발언하는 게 역사가의 역할이 아닌가? 더불어 그의 역사는 중립성과 자의성의 위험을 피하면서 ‘올바른’ 역사의 해석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다른 역사들과 차이 나는 타푸리의 해석의 입각점의 우월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결국 그것은 믿음/이념의 문제 혹은 설득의 문제로 귀결되지 않는가?

사실 비판을 통해 타푸리처럼 현실 건축에 대해 급진적으로 발언하는 역사가도 드물 것이다. 그러나 타푸리의 절대 부정의 프로젝트는 현실 장에서의 모든 건축 생산, 건축가의 디자인 행위가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이나 신화 생산에 복무하는 것이기에, 그리고 그 바깥은 허용되지 않기에 난처한 딜레마를 제기한다. 건축가로 현실에서 존재하려면 그는 체제 내에서 허구적 이데올로기의 생산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에게는 출구가 없다. 비평(역사)와 실천의 분리를 주장하는 그의 비판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역사는 궁극적으로 건축 분과 내의 실천적/비평적 개입의 불가능성을 의미하기에 일종의 묵시록적 성격을 띤다.

그러나 타푸리가 제기한 역사 서술의 문제와 그가 제시한 ‘대항 서사’는 종래의 지배적 설명의 유효성을 의문에 불인다는 점에서 근대건축사에 중요한 사건으로 작용했다. 그의 서술 전략은 과편화된 서사들을 특정한 시공간에서 짜 맞추면서 역사의 다층성을 보여주고 특정 국면에서 설명력/설득력을 갖춘, 그러나 잠정적인 성격의 해석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타푸리는 역사 서술 작업을 ‘조각그림 맞추기’로 비유했는데⁵³⁾ 벤야민이 제안한 별자리의 몽타주와 유사한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케네쓰 프램튼은 모자이크에 비유하고 있다.) 비판적 역사의 등장과 함께 근대 건축사는 대문자 역사(History)가 아니라 여러 상이한 복수의 역사들(histories)의 길항과 경쟁으로 보는 것이 훨씬 합당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후에 출판된 두 권의 근대건축사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문제들을 제기한다. 비슷한 시기에 주목할 만한 두 권의 건축사가 나왔다. 1980년에 출판된 케네쓰 프램튼의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와 1982년에 나온 윌리엄 커티스의 [Modern Architecture Since 1900]이 그것이다. 전자가 한나 아렌트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좌파적 관점을 취하고 후자가 과거 선배들의 역사를 계승하는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상호 유사한 성격도 발견된다.

우선 두 역사가 이제까지의 근대건축에 대한 확장된 자료들과 여러 수정된 견해들을 수용하면서 일목요연한 인과적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단편적 서사들의 느슨한 조합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들은 하나의 ‘큰 이야기(거대 서사)’로서 근대건축사를 회피/포기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는 기존의 통사적인 역사 서술에 대한 반성과 대안으로 근대건축의 역사를 여러 토막 낸 ‘작은 역사’(小史)들의 우연한 집합처럼 그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복잡하고 다기한 근대건축의 전경을 펼쳐 보여주려는 학문적 야심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공하기도 한다. 비유하자면 암묵적으로 ‘최후의’ 전체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비판적 역사’라는 부제를 담고 있는 프램튼의 두터운 역사는 그 대부분을 근대 운동(Modern Movement)에 할애하고 있다.⁵⁴⁾ 성기 혹은 본격 모던(high Modern)에 해당하는 이 짧은 시기가 그의 근대건축사 서술의 거의 대부분이 된다.⁵⁵⁾ 설명적 성격이 강한 이 부분에 비해 “1925년부터 현

50) M. Tafuri, [Architecture and Utopia], Trans. by B. L. La Penta, Cambridge, The MIT Press, 1979 (1973)

51) 타푸리가 근대건축의 ‘역사적 프로젝트’(historical project)를 말한 것을 패러디하여 역사서술적 프로젝트란 말을 도입했다.

52) 이는 텍스트 생산에서 어떤 이념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이 ‘진리’라고 말하는 생산 방식을 은폐하고 자연화하려는 지식생산 행위일 것이다.

53) M. Tafuri, [The Sphere and Labyrinth],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87, p. 1

54) 1980년도 초판이 특히 그러하다.

K. Frampton,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London, Thames and Hudson, 2007(1980)

제에 이르기까지의 건축적 건축에 대한 비판적 접근"인 제 3부는 현실 비평의 색채가 강하다. 그의 역사는 근대건축의 양면적 측면을 고루 비추며 그것이 처한 곤경과 위기를 분석한다. 프램튼은 기디온의 '종합' 같은 것은 전혀 의도하지 않지만 "사고와 정서 간의 분리"처럼 "장소와 생산 사이의 괴리/적대" 같은 대립적 개념을 여전히 취하고 있다. 하이데거의 '거주'(dwelling) 개념에 기댄 그의 장소에 대한 옹호는 지역주의에 대한 무망해 보이는 지지로 나타난다⁵⁶⁾. 자본주의 체제의 문화적 동일화와 저속화에 대한 비판이자 저항으로 해석되는 지역주의에 대한 그의 희망의 괴력은 이해되지만, 근대성의 시각에서 보자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⁵⁷⁾

흥미로운 사실은 프램튼의 건축사가 관을 거듭하며 꾸준히 확장 증보되었다는 것인데, 종결된 역사가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역사로서 동시대의 양상을 조명하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구체적으로 재판(1985)에서는 "비판적 지역주의"(Critical Regionalism)라는 제목으로, 1992년판에는 "세계건축과 반성적 실천"(world architecture and reflective practice)이라는 제목으로, 2007년의 네 번째 판에서는 "지구화시대의 건축"(architecture in the Age of Globalism)이라는 제목으로 동시대의 동향을 논의하고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동시대 건축이 처한 곤경과 위기를 이슈화하고 의미 있는 실천을 열거하는 3부의 비평적 시각은 충분히 납득이 되면서도 동시에 그의 역사 서술이 봉착하는 난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근대 운동 이후의 범지구적 규모로 전개되는 방대하고 다양한 흐름과 사건들을 그 짧은 서사로 개념화하고 압축해 담으려는 시도는 무모해보이고 역부족이라는 것이다.⁵⁸⁾ 이는 필연적으로 그의 근대건축사가 거의 전적으로 서구의 역사로 한정되는 문제로 귀결되는 데, 20세기 중 후반의 비서구의 수많은 시도와 노력을 외면하고 무화시키는 것이기도 하다.⁵⁹⁾ 결국 프램튼의 역사는 하버마스과 마

55) 백낙청은 high modern을 본격 모더니즘이라 번역하는 데 훨씬 적절한 것 같다.

56) 그가 지지하는 지역주의는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것이 아니라 지구화와 후기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이자 해독제로서 '비판적'인 지역주의이다.

57) 지역주의가 주변적이고 비주류이며 소수자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58) 이는 3, 4판에서 더 뚜렷이 나타난다. 여기서 그는 재판에서 제기한 '비판적 지역주의'와 같은 생산적인 화두를 던지지 못하고 있다. 세계건축이라는 용어는 빈곤해 보이고 지구화 시대의 건축도 그러하다. 다만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기초만은 계속되고 있다.

59) 프램튼도 이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그의 역사에서 서구 바깥의 실천은 기껏해야 일본이나 아메리카 정도이다. 그는 라틴 아메리카나 중동에서의 최근 업적을 포함시키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적지 않다.

K. Frampton,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London,

찬가지로 서구가 미래의 책임을 떠맡은 '미완의 기획'(incomplete project)이 되는 것이다.⁶⁰⁾

커티스는 대서양 양안이 지닌 문화적 편견과 권력 구조에 기반을 둔 역사 서술은 근대 건축의 전 세계로의 확산을 감안할 때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한다.⁶¹⁾ 실제로 그는 비서구 건축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보이면서 전통, 지역, 정체성의 문제에 더 많은 페이지를 할애한다. 그러나 간간이 삽입된 이들 서사는 그 의도와 달리 오리엔탈리즘의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는 여전히 보편 대 특수, 근대와 전통, 국제와 로컬, 분류와 지류 같은 이분법적 대립을 고수하면서 자신의 서사를 전개한다.

1996년 제 3판의 출간까지 개정과 확장을 거듭한 커티스의 근대건축사는 프램튼 것 보다 내용도 더 풍부하고 취급 범위도 더 넓다. 책 제목이 암시하듯 그는 근대건축의 기원보다 진화 전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인다. 그의 역사 서술은 선배 사가들의 문제를 지양하면서 계승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근대건축을 규정하는데 편협하며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다. 건축의 형태와 의미, 그리고 그것을 낳은 건축가의 탁월한 창의력에 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조형 예술사의 미학적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지만 건축의 근대성이 지닌 어두운 측면이라든가 사회적 맥락에는 무심하다. 더 큰 문제로 여전히 진보사관과 관념론에 물들어 있으며 본질, 건강 같은 가치 담지적 용어를 구사하는 윤리적 입장을 견지한다. 역사에서 일시적 유행이나 파행을 영속적인 것으로 구분하려는 판관의 태도 역시 엇보인다. 그는 자신이 기디온 식의 역사 서술 방식의 계승자임을 공공연히 언표하고 있다.⁶²⁾

아마도 두 역사가의 '이야기'는 통사로서 근자에 가장 널리 읽히는 역사일 것이다. 그만큼 나름의 장점과 미덕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서술 방식은 포스트 식민주의나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보면 편견으로 가득 찬 서사로 비칠 수 있다. 오늘의 관점에서 보자면 근대 운동은 유럽에서 전개된 국지적인 문화 운동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계몽에 기원을 둔 보편사로 주장하기엔 점점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모더니즘 건축을 근대화의 일환으로서 추진된 전 지구적 프로젝트로 보자면 그들의 역사에서 비서구의 거의 전적인 누락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한편, 그들의 증보

Thames and Hudson, 1992, p. 7

60) J. Habermas, "Modernity, An Incomplete Project", [The Anti-Aesthetics][[반미학]], ed. by H. Foster, 현대미학사, 1993(1983), pp. 28-44

61) W. J. R. Curtis, [Modern Architecture since 1900], London, Phaidon, 1996, p. 10

62) 2판 서문에서 그는 근대건축을 새로운 종합으로 간주하는 기디온의 관점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다. 위의 책, p.

확장판에서 보듯 제한된 서술로 무한히 확장, 다변화되는 동시대의 실천을 따라 잡지 못한다는 난점을 노정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유동적이고 살아있는 경험’으로서 동시대에 진행되는 실천과 변화가 시간을 소급해가며 이전에 써 놓은 서사를 흔들며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늘의 국면은 근대운동과 그 이후의 전개를 ‘모던 이후’(After Modern), ‘후기 모던(late Modern)’ 이니 ‘탈 모던(Post Modern)’과 같이 전후 관계에서 이름 지어 부르던 헤겔주의적인 역사 서술의 관행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임을 인식하게 한다.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끊임없는 문화적 재생산 과정으로 파악할 필요를 제기한다. 물론 영역/분과(discipline) 내의 변화와 차이는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료타르의 거대 서사(meta narrative)에 대한 불신은 잘 알려져 있다. 그 기저에 도사린 목적론, 진보 신학을 비판하면서 료타르는 보편성을 주장하는 어떠한 진술도 그 적실성을 보장 받을 수 없고, 언어(역사 서술)가 실제 대상과 상응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⁶³⁾ 그에 동의한다면 근대건축사에서 전체적 조망이나 전경 같은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역사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인이나 시대정신 등은 지극히 의심스러운 것이다. 극복과 발전, 지양의 논리로 점철된 기존 근대건축사 서술도 전면적으로 재고되어야 하는 것이다.

비슷한 논리에서 바티모는 진리를 주장하는 담론 체계가 설득의 체계이며 논리가 일종의 수사학을 말한다. 존재는 자신의 위치를 부동의 것으로 보지 않는 ‘약한’(weak)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자신의 자리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바티모는 주장한다. 그를 다르먼 현대는 보편사를 구성하기가 불가능한 시대이다⁶⁴⁾. 그가 인용하는 탈역사(post-history)는 역사의 종언이 아니라 진보와 새로움이라는 형이상학적인 가치가 더 이상 역사 해석에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을 뜻한다⁶⁵⁾. 역사 서술에서 (선험적) 진리를 주장할 수 없다면 대신 설득의 담론이 중요한 미덕이 될 것이다. 미술사가인 키스 맥시도 역사 서술의 역설적 측면을 강조하며 설득과 수사학을 강조한다. “의미에 관한 합의가 부재할 때, 진리-주장은 오직 설득에 의해서만 확립이 되고 도전받으며 논쟁될 수 있다”⁶⁶⁾는 것이다. 그렇

다면 헤겔식 운동이나 화해 대신 ‘끝없는 이야기’로서 수많은 의미를 산출하는 역사 서술이 남아 있을 뿐이다. 상이하고 경쟁하는 다양한 서사들은 건축사 서술을 더 풍요롭게 할 것이다.

5. 맺는 말

오늘 이 시점에서 근대건축사의 역사 서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무슨 시사를 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시간 속에서 근대건축에 대한 역사 서술의 변화와 논점의 이동에 대한 관찰은 근대건축이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나 대상으로 보기보다 계속 변화하는 현상이자 특정 시점의 해석의 산물임을 인식하게 한다. 더불어 우리의 근대건축에 대한 이해가 담론적 실천에 의한 것이며 그 자체가 역사적 소산이라는 것, 또 그 개념과 의미가 동시대의 실천과 맞물려 변해 왔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근대건축의 ‘역사성’의 이해는 종결된 역사로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지속되고 있는 역사로서 근대(현대) 건축을 동시대의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할 사건으로 위치 짓는다.

이러한 비판적 인식은 근대건축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폭을 확대시키고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질 바탕을 마련해준다. 또한 근대건축과 그 역사를 재고하며 성찰할 근거를 제공해 준다.⁶⁷⁾ 정전으로서 받아들여 온 그 지배적 언술에 대해 맹목적 청중의 입장에서 벗어나 서술 주체의 위치에 대해 비판적으로 재고하게 하는 것이다. 아직 말해지지 않은 근대건축사의 틈새를 메워야 할 필요도 제기된다.⁶⁸⁾ ‘정보’ 근대건축사 대신 다양한 ‘건축사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이다. 이는 근대건축의 다른 ‘별자리’를 그리는 일이 될 것이다.

또 하나, 근대건축사 서술의 비판적 검토는 우리 건축사 학계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건축사 기술이 어떤 입각점이나 이론적 전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깊이 해본 적이 거의 없다. 우리 역사 연구는 여전히 연대기적 연구, 실증주의적 연구의 경향이 강하다. 이른바 역사주의가 역사 연구에 지배적 힘을 발휘하고 있기도 하다. 역사 기술의 전제와 방법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건축사 연구는 기존의 아카데미즘의 답습에 머물 경향이 다분하다. 연구자의 위치와 입장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역사,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현실 연관성을 고민

63) J. F. Lyotard, [포스트모던의 조건], 유정환 외 역, 민음사, 1984(1979), pp. 229-270

64) Gianni Battimo, [근대성의 종말], 박상진역,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3(1985), p. 84

65) 비들러도 그의 근대건축사를 다룬 책의 종장을 “포스트모던 혹은 포스트히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삼고 바티모를 도입하면서 (진정한) 변화 없는 변화가 계속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다.

A. Vidler, 앞의 책 .p. 196

66) K. Moxey, 앞의 책, p. 25

67) 우리의 처지에서 보자면 저들의 역사로서 근대건축사와 우리의 역사로서 근대건축사의 차이에 대한 자각, 그리고 상이한 조망 속에서 우리의 근대(성)를 묻고 반성할 여지를 제공한다.

68) 대표적인 예로 근대 건축의 성립에 기여한 타자의 기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미술사와 달리 건축사에서 비서구의 영향은 서사로 편입되지 않았다.

하는 역사가 되어야 할 터인데, 이 부분에 대해 지나치게 무심한 게 아닌지 반성할 여지가 있다. 이는 한국전통 건축의 역사나 한국 근대/양식 건축의 역사 서술에서도 회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⁶⁹⁾ 더 먼 과거의 연구라고 이런 비판을 모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References

1. Battimo, Gianni, [La fine della modernita]([근대성의 종말], 박상진역,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3(1985)
2. Banham, Reyner. [Theory and Design in the First Machine Age], Cambridge, The MIT Press, 1980(1960)
3. Banham, Reyner. [Design by Choice], ed. by P. Sparke, London, Academy Editions, 1981
4. Benjamin, Walter, ([Selected Essays of Walter Benjamin]([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 역, 민음사), 1985
5. Cheetham, M. A. [The Subject of Art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미술사의 현대적 시각들]),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7(1998)
6. Colquhoun, Alan [Modern Architec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7. Curtis, William. J. R. [Modern Architecture since 1900], London, Phaidon, 1996
8. Foucault, Michel, [L'archeologie du savoir], (『지식의 고고학』 (이정우 역, 민음사, 1992(1969))
9. Frampton, Kenneth,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London, Thames and Hudson, 2007(1980)
10. Frampton, Kenneth,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London, Thames and Hudson, 1992
11. Giedion, Sigfried, [Space, Time and Architecture] ([공간 시간 건축], 김경준역, 시공문화사), 1998(1941)
12. Giedion, Sigfried, [Architecture and the Phenomena of Transi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13. Gombrich, E. H. [Ideals and Idol], Oxford, Phaidon Press, 1979
14. Hong, Junki, [Walter Benjamin: Modernity and City], ((홍준기편, [발터 벤야민, 모더니티와 도시], 라움), 2010
15. Lyotard, Jean-Francois, [La Condition Postmoderne] ([포스트모던의 조건], 유정완 외 역, 민음사), 1984(1979)
16. Moxey, K. [The Practice of Persuasion, Cornell University,]([설득의 실천]), 조주연역, 2008(2008)
17. Ockman, Joan. "Form without Utopia: Contextualizing Colin Rowe", [JSAH], 57:4, Dec, 1998
18. Pevsner, Nikolaus, [pioneers of Modern Design], Middlesex, Penguin, 1982(1936)
19. Rowe, Colin, [The Mathematics of the Ideal Villa and Other Essays], Cambridge, the MIT Press, 1982(1976)
20. Rowe, Colin, [The Architecture of Good Intentions], London, Academy Editions, 1999
21. Rowe, Colin, "Introduction", [Five Architects],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22. Tafuri, Manfredo, [The Sphere and the Labyrinth], trans. by P. d'Acerno, Cambridge, The MIT Press, 1987
23. Tafuri, Manfredo, [Architecture and Utopia], Trans. by B. L. La Penta, Cambridge, The MIT Press, 1979 (1973)
24. Tafuri, Manfredo, [Teoria e Storia della Architettura], ([건축의 이론과 역사], 김일현역, 동녘), 2009(1986)
25. Tournikiotis, Panayotis, [The Historiography of Modern Architecture], Cambridge, The MIT Press, 1999
26. Vidler, Anthony. [The History of the Immediate Present], Cambridge, The MIT Press, 2008
27. Watkin, David. [Morality and Architec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7(Books, 1982(1936))
28. Winke, Georgia, [Gadamer: Hermeneutics, Tradition and Reason] (이한우 역,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 사상사), 1939
29. Zarzombek, Mark, "A Prolegomena to Critical History", [JAE 52/4], 1999
30. "On the Methodology of Architectural History", [Architectural Design], N. 51, 6/7, London, AD Profile

Received (10.15.2014)

Revised (1st: 1.8.2015 , 2nd: 1.21.2015)

Accepted (2.25.2015)

69) 자의적이고 근거 없는 근대와 현대의 구분 같은 것이 대표적 예이다. 일본 학계의 전통을 답습하여 양식건축과 근대건축을 나누고 상이한 대상으로 보는 관행 역시 마찬가지이다.